

최소 절개법에 의한 무릎 인공관절 수술

8~10cm 절개... 후유증·회복기간 줄여

나이가 들면서 무릎에 통증을 일으키는 가장 많은 원인이 관절염이다. 여러 가지 종류의 관절염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퇴행성관절염이다. 퇴행성 관절염은 뼈를 덮고 있는 관절연골이 닳아져서 생기는 병이다. 초기에는 병이 진행되어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엑스레이를 찍어도 드러나지 않는다. 초기나 중기에는 대개 약물이나 주사, 물리치료 등을 통해 수술을 하지 않고 치료를 하지만, 아주 심해져서 관절 연골이 닳아져서 뼈가 노출될 정도가 되면 인공 관절 수술을 해야만 한다.

초·중기 약물·주사·물리치료로 시술 인공관절 정상무릎의 90%까지 기능

◇인공관절수술이란? = 인공 관절 수술의 학문적인 수술명은 '관절치환술'이다. 관절을 바꾸어준다는 의미다. 다 닳아진 관절면을 약 5~10cm 두께로 잘라내고 그 자리에 금속으로 만든 관절을 삽입하고, 그 사이에는 폴리에틸렌이라는 플라스틱 같은 물질로 만든 베어링을 끼워준다.

관절 연골이 다 마모되어서 걸터다닐 때 심한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인공 관절 수술 외에는 마땅한 치료법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인공 관절에 대한 인식이 별로 좋지 않아서 당연히 수술을 해야 하는 환자들도 수술을 안 하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지금은 인공 관절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인공 관절 수술 후 별다른 문제없이 생활하는 환자들이 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바뀐 것이라 생각한다.

실제로 인공 관절 수술 후에는 아주 드물게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아니면 거의 대부분이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다. 정상보다 조금 못한 관절을 새로 얻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정상보다 조금 못하다고 하는 것은 정상에서는 모든 기능을 100%로 발휘할 수 있지만 인공 관절은 약 85~95% 정도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평균적으로 90% 정도이므로 일상 생활에서는 큰 불편이 없이 사용할 수가 있다. 정상이 안 되는 것은 아쉬운 일이지만 결과가 아주 좋은 경우에는 거의 정상처럼 사용하는 분들도 많고, 수술하기 전에 40~50% 정도 밖에 되지 않아서 통증 때문에 일상 생활도 힘들었던 것을 생각하면 기적 같은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렇게 결과가 좋은 인공 관절이지

만 수술이 잘 되어야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수술이 잘 된 인공 관절이란 정상 관절에 가장 가까운 관절이다. 관절이 튼튼하면서도, 하지 정렬이 정상에서처럼 바깥쪽으로 5~10도 배열을 이루고, 관절이 잘 구부러지고 펴지도록 된 관절이다. 관절이 튼튼해야 걸터다니거나 어떤 활동을 할 때도 무릎이 흔들리지 않아 통증을 없다.

관절 배열이 잘 되어야 인공 관절의 안쪽과 바깥쪽에 체중이 골고루 분산되어 마모가 일어나지 않아 오래 쓸 수 있다. 관절 운동이 잘 되어야 여러 가지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수술을 잘 하고 못하는 것은 거의 전적으로 집도의사의 수술 테크닉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소 절개법에 의한 인공관절수술 = 사실 인공 관절을 하려고 하는 환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최종적인 결과가 아니다. 내일 수술을 위해 오늘 입원하는 환자에게 무엇이 가장 걱정스러운가를 물으면 대부분 수술 후 치료과정을 더 걱정하고 있다. 수술 직후의 통증이나 관절을 구부리는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의 통증 등이 더 무서운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수술 방법이 최소 절개법을 이용한 인공 관절 수술이다.

기본적인 인공 관절 수술은 약 12~15cm 정도의 피부 절개를 통해 수술을 한다. 피부절개를 많이 할 뿐만 아니라 속에서도 근육과 힘줄 사이의 절개도 크고, 슬개골을 탈구시키지 않기 때문에 주변 근육이나 인대 등 연부 조직에 많은 스트레스를 준다. 상처가 커서 연부조직 손상을 많이 주면 그만큼 수술 후 통증도 더 많



정재훈 세계로365병원 원장이 관절 연골이 마모돼 보행에 큰 불편을 겪은 60대 환자의 무릎 상태를 진찰하고 있다.

고, 부종이 더 심해 회복도 더디고, 출혈도 더 많다. 관절 운동 회복도 더디고, 활동을 시작하는 시기도 더디어진다.

최소절개 인공 관절 수술은 약 8~10cm 정도의 피부 절개를 통해 수술을 한다. 피부 절개를 조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속의 근육 등의 손상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슬개골을 탈구시키지 않고 수술을 하고, 수술을 끝마치고 봉합을 할 때는 상술개방을 봉합해주어 수술 후 유착을 방지해 준다. 이렇게 수술을 하면 수술 후 부종이 적어 회복이 빠르고, 통증도 적으면서, 출혈도 적다. 다리를 들어올리고, 걸터다닐 수 있는 시기 등도 빠르며, 유착이 적기 때문에 관절을 구부리는 운동이 훨씬 쉽게 되어 고생을 덜한다.

회복 초기에는 별로 신경쓰지 않지만 회복이 다되고 나면 작은 상처도 자랑거리가 된다. 최소 절개 수술법의 이러한 장점들은 필자가 2007년 아시아 태평양 정형외과 학회에서 발표한 논문에서 여실히 증명되었고, 많은 학자들도 증명하고 있다.

하지만 최소절개 인공 관절 수술은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선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단점이다. 작은 상처를 통해서 관절 속을 시원하게 다 보면서 수술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인공관절 수술법보다는 훨씬 어렵다. 특히 관절염이 아주 심한 사람, 그리고 비만이 심한 사람에서는 최소 절개 수술법을 시행하기가 어렵다는 것도 단점이라 할 수 있다. (세계로365병원 정재훈원장) /정리=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인체의 정수기' 신장 건강하게 지키기

과로 피하고 몸은 따뜻하게 채소·과일·수분 충분히 섭취

혹시 요즘 부족 몸이 붓거나 소변이 이상 있는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눈 주위가 부어 있거나 저녁쯤 되어 다리가 붓고 소변을 볼 때 불편하다면 신장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우리 몸에서 작지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장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스스로 몸 상태를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건강관리협회광주전남지부 윤정웅원장과 함께 신장을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신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부대 짝을 받는 장기 중 하나다. 두 쪽의 신장 중 한쪽을 다른 사람에게 이식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많이 하지만 사실 신장질환은 결코 만만한 병이 아니다. 특히 신장염은 대부분 잘 낫지 않는 난치병인 경우가 많다.

신장 기능의 이상으로 동반되는 대표 질환으로는 신장염, 신우신염, 신증후군, 신장결석, 신경화증, 신부전 등이 있다. 이러한 신장 질환은 보통 신장의 노폐물 배설기능이 원활하지 않아 생기는 질환으로 대개 그 증상이나 경과가 완만해 자가 증상이 없거나 적은 것이 일반적이며 잘 낫지 않는다.

이 같은 신장질환의 예방을 위해서는 과로를 피하고 자극성 있는 음식물 섭취를 줄이며, 상한 음식은 절대 피하고 약을 함부로 먹지 말아야 한다. 특히 신장이 약할 경우엔 고기, 우유, 계란의 섭취를

줄이고 생선회 등은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정제염이나 화학조미료 사용을 금지하고 이뇨 작용이 있는 약효 식품을 섭취하며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한다. 몸이 차면 경우 약해진 신장이 추위와 스트레스에 더욱 악화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평소 마음을 편안하게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 신장에 좋은 음식으로는 과일과 녹황색 채소, 섬유소가 많은 해조류, 정제하지 않거나 도정하지 않은 곡류 등이 좋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여 소변이 농축되지 않도록 하고 소식하는 것이 좋다. 또한 어떤 음식이든 반드시 천천히 잘 씹어 먹어야 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화순전남대병원 양전자방출단층촬영기기 도입

컴퓨터단층촬영기기도 가동...암 검사 시간 줄여

화순전남대학교병원(원장 송은규)은 최근 최신행 양전자방출단층촬영기기(이하 PET-CT·사진)와 최첨단 컴퓨터단층촬영기기(이하 CT)를 도입해 가동에 들어감으로써 환자들에게 보다 빠르고 정확한 영상진단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화순전남대병원에는 2004년 개원 당시부터 서울의 유수병원에 뒤지지는 않은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2010년 '다빈치 시스템'과 '토모테라피'를 도입

해 첨단기술병원으로서 화제가 된 바 있다. 국내에 설치된 PET-CT가 150대를 넘어서는 시대가 되면서 암검사 를 위한 PET-CT는 이미 국민보건복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번에 화순전남대병원에서 추가 도입한 PET-CT는 GE Discovery 600 elite로써 기존의 장비보다 민감도가 더 향상되고 영상의 질을 높이는 기술이 추가된 새 장비이다. 새로 도입된 장비를 통하여 암검사 및 건강검진을



위한 환자들에게 보다 나은 영상질을 짧은 시간에 제공하게 됨으로써 환자 에게 좋은 검사결과를, 의사에게는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됐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아스피린, 소화성궤양 유발 원인

분당서울대병원 김나영 교수팀 연구

심혈관 질병 예방을 위해 복용이 증가하고 있는 아스피린이 위궤양과 십이지장궤양 등의 소화성 궤양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김나영 교수팀은 내시경검사서 소

화성궤양 진단을 받은 475명과 비궤양성 소화불량증이 있는 335명을 대상으로 약물복용력과 흡연·음주량 등을 조사한 뒤 치료 후 1년에서 5년까지 추적 관찰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7일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를 담은 논문은

대한소화기학회지 최근호에 실렸다.

논문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고령 인구비율과 함께 아스피린이나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의 처방이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소화성 궤양 발생률이 높아지는 추세다.

소화성궤양의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와 아스피린을 복용하더라도 궤양을 예방하는 약물을 처방받은 사람에서는 발병 위험도가 감소했다. /연합뉴스

동양인들은 전통적으로 유교적 전통윤리에 근거를 두고 생활을 하며 미용을 목적으로 수술을 받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많았으나 서구 문명의 영향으로 생활 양식이 변화해서 밝은 표정이 있는 쌍꺼풀이 좋다고

을 수 있다. 짙은, 쌍꺼풀 풀어짐, 수술 부위 흉터가 생기는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보통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쌍꺼풀 수술을 하는 것은 서구적이 얼굴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눈에 표정이 있는 동양적인 쌍꺼풀을 만드는 것에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쌍꺼풀 수술이란 중검 예정선의 피부를 검판 또는 안검거구의 적당한 부위에 유착시키는 조작이다.

수술방법은 피부 비절개는 매물법이라고도 하며 자연스러운 쌍꺼풀을 희망하는 경우이며 수술 후 수정이 용이하여 의사와 환자 모두가 심리적 부담이 적고, 젊은 여성들은 절개수술을 기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상안검 피부가 과다하거나 안검하수, 안검, 안와 지방의 과다 또

는 반흔이 있는 상안검 등에서는 피부절개법이 적절한 수술이라고 생각된다.

수술전 시력검사, 안검하수의 유무, 좌우의 균형을 관찰하여 술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며 환자가 이해하고 승낙하는 것이 수술 그 자체보다 중요하다.

물론 수술후 경과에 대한 요점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술후 1주일의 세면이 불가능하며, 목욕은 발사후 3일후에 안검의 부종이 3개월 정도 되어야 거의 없어지며 6개월이 되어야 수술자국도 대부분 사라진다고 충분한 설명을 해야할 것이다.

(김영길 성형외과 원장)



김영길 성형외과의원 062-227-3777 무등극장 앞

쌍꺼풀 수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졌다.

그러나 같은 쌍꺼풀이라도 동양인에게는 동양인의 쌍꺼풀이 있고 안면골의 골격이나 눈의 연부조직이 서양인들과 다른 동양인으로는 눈만을 서구인에 닮으려 해도 부자연스러우며 또 다른 기관과의 균형도 잡히지 않